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1/14~2/4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랑가라 컬리지는 벤쿠버 중심지에 위치하여 교통편이 매우 편리하며 처음 방문하였어도 지리를 익히기 쉬웠다. 또한, 다양한 인종이 한 대학 안에서 어우러져 있어 벤쿠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학이 아닌가 싶다.</p> <p>학교 내부시설을 대체로 청결하였으며 교실 배치가 잘 되어있어 교실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cafeteria, 독서실, 팀홀튼, 스타벅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식사를 할 공간이 부족하여 자리를 잡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p>
수업	<p>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쉬는 시간 2번과 점심시간으로 이루어져있었다. 그리고 EO(ENGLISH ONLY)란 규칙으로 영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영어실력을 늘리는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수업 커리큘럼은 에세이쓰는 방법, small talking, 토론, 신문요약, 캐나다 문화 등의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숙제가 있었다.</p>

Activity	<p>1. 컬링 예전에 알던 컬링은 쉬운 스포츠였지만 운동신경과 센스가 요구되는 전문적 스포츠이다. 한국에서는 쉽게 배울 수 없는 컬링이란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경기장 안이 추울 수 있으니 두꺼운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p> <p>2. 밴쿠버 박물관 밴쿠버 박물관에서는 밴쿠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밴쿠버의 원주민들의 문화와 현재의 밴쿠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시민들의 인권운동과 문화운동 등을 체험 할 수 있다.</p> <p>박물관 관람을 지겨워하는 분들은 근처 베니어파크를 둘러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날씨가 좋다면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경치가 당신을 매료시킬 것이다.</p> <p>3. 그랜빌아일랜드 그랜빌아일랜드에선 다양한 상점을 볼 수 이쁘. 대표적인 예로 퍼블릭마켓에선 색다른 식료품을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옷 매장과 아트매장등이 있다.</p> <p>4. 밴쿠버아쿠아리움 한국의 아쿠아리움을 기대하고 가면 다소 실망할 수 있다. 규모도 작고 동물 숫자도 적다. 하지만 동물 먹이 시간, 돌고래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심심하지는 않을 것이다.</p>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에서 밴쿠버는 레인쿠버라 불릴만큼 비가 수시로 온다. 그렇기에 겨울 밴쿠버는 여행오기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맑은 날씨에도 갑자기 비가 올 수 있으니 우산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밴쿠버 날씨는 춥지 않기에 한국의 가을날씨의 옷을 갖고가는 것을 추천한다.</p>

안전	<p>벤쿠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안전한 도시인 것 같다. 학교의 주의사항만 잘 파악한다면 위험을 마주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보다 어두워지는 시간이 빠르기에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마약을 하는 사람들,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을 추천하며 차이나타운은 되도록 가지 않은 것을 추천한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0)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시설은 대체로 깔끔하나 청소는 스스로 해야한다. 가장 불편한 점은 빨래였는데 내가 살았던 홈스테이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빨래를 해주어 신을 양말이 부족했다. 그렇기에 양말과 속옷과 같은 경우는 빨래비누로 화장실에서 빠는 것을 추천한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0) 외부식당 () 기타()</p> <p>숙소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다. 우선, 맛은 밍밍했지만 홈스테이에 거주하는 입장이라 큰 불만을 표하지도 참을만은 했다. 하지만, 점심박스가 저녁에 남은 음식을 넣어준다던지, 음식이 항상 같다던지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이 컸다.</p> <p>그렇기에 저녁을 보통 밖에서 해결했다. 그 중 가장 추천하는 집은 JAM CAFE와 THE KEG다. KEG는 스테이크 집인데 벤쿠버에서 3번의 스테이크 집을 가보았지만 KEG가 가장 저렴하고 고기도 두꺼웠다. 그리고 JAM CAFE는 브런치 카페로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음식을 맛본다면 힘들었던 것도 다 잊을만큼 맛있다.</p>
교통	<p>캐나다 교통은 한국과 비슷하리만큼 편하다. 통학때는 교통카드를 주어져었지만 거리가 가까워 걸어다녔다. 개인여행에서는 교통카드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항.공.료.:1,372,900 보.험.료.: 33,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사비용	약 70만	홈스테이 밥을 먹지 않았기에 외식비용이 많이 나왔으며 홈스테이 아들과 친구들을 사주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쇼핑	약 26만	쇼핑을 그다지 하지 않았다. 단순히 텀블러와 옷 2벌과 초콜릿정도였다.
핸드폰 수리비	약 30만	연수도중 핸드폰이 깨져 수리비용으로 30만원이 들었다.
교통비 및 입장권	약 10만	
합계	136만	

5. 출국 전 준비사항

1. 쇼핑리스트

출국 전 쇼핑리스트를 정해서 가는 것을 추천한다. 캐나다 외식비는 생각보다 한국보다 훨씬 비싸기에 외식을 웬만하면 자제하고 홈스테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2. 입국 자료

입국 전 ETA 메일 복사, 입학허가서, 홈스테이 정보 등을 들고가는 것이 좋다. 최대한 자료가 많을수록 입국허가를 받기에 쉬울 것이다.

3. 홈스테이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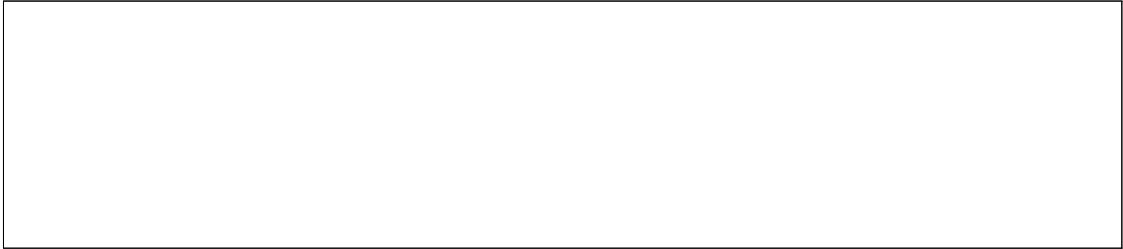
3주간 신세질 홈스테이에 선물을 사가는 것을 추천한다.

4. 데이터 유심

캐나다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외유심을 미리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간 캐나다는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다.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이곳 밴쿠버에서는 문화가 혼합된 집결지로서의 색다른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많은 관광지를 방문하였고 저렴한 음식부터 고급스러운 음식까지 많은 먹거리를 먹으며 이전 한국에서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았다. 물론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여 놀랐지만 후회는 없다. 만약 다시 밴쿠버에 온다면 학교생활으로 외박을 할 수 없어 못간 곳을 한번 가고싶다. 그만큼 밴쿠버는 3주안에도 그 도시의 문화를 모두 체험할 수 없을만큼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를 갈 시 여름때 가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캐나다에서 가장 불만이었던 것은 비내리는 날씨였다. 여름의 밴쿠버는 맑고 비가 안내리는 최고의 도시이다. 만약 날씨만 괜찮다면 밴쿠버 어느 곳이든 좋은 관광지가 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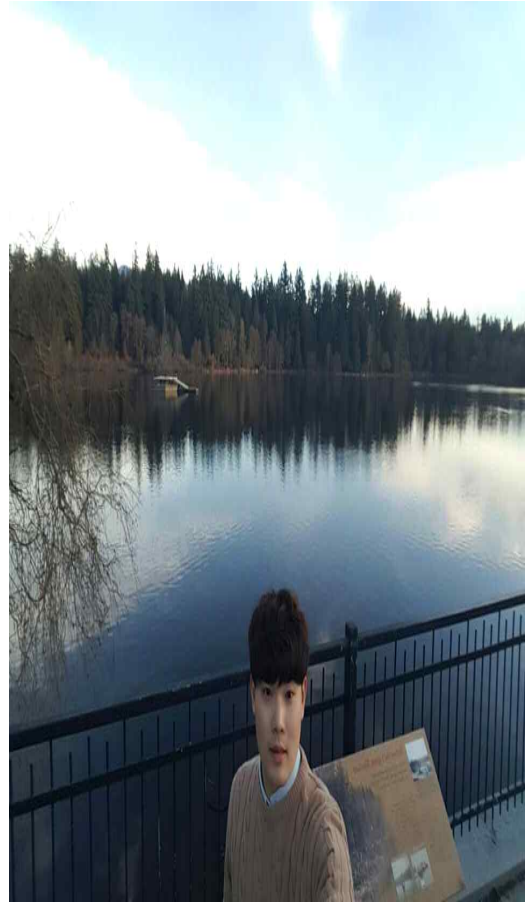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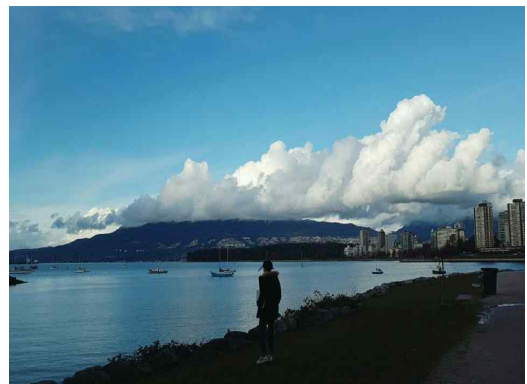
	
스노우쇼잉	capilano



GRANVILLE ISLAND



STANLEY PARK



VICTORIA ISLAND		VANIER PARK
-----------------	--	-------------